

# 다양한 성능을 갖춘 장수명과 자원 순환형 주택 추구해야



21세기의 건축에 관한 화두는 단연 지속가능한 개발일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자손 대대로 어떻게 잘 유지해 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다. 21세기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환경 파괴와 자원 소비의 틀 안에서 성립한 20세기의 개발방법을 탈피하여 지구 환경에 부하를 적게 주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잡힌 방향이 필요한 시대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화석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구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의 고유가는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건설 산업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으로 자원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특히 중요하다. 주택분야도 건설 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국가 정책과 기술 개발의 주요 방향도 전 세계적인 자원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도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택의 성능등급표시 제도,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 등이 시행되고 생태도시, 생태건축, 리모델링 등은 이제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환경과 성능중심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급격한 여건 변화의 전환기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방향은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함께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기반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주택의 방향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과 에너지 절약의 기본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길과 오래 사용하는 길이다.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성능의 문제와 결부될 때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건설에 소요되는 내재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과 직결된다. 오래 사용하는 것은 건설 시 뿐만 아니라 사용 시에도 성능과 기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리모델링이 용이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여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수명이 다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해체될 경우에도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재사용(Reuse)하고 재생이용(recycle)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번 건설하면 몇 세대를 이어 사용해도 노후화하거나 진부화하지 않는 주택의 건설이 필수적인 방향이다. 내구성이 높고 사용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과 자원을 순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설계와 시공과 유지관리에서 해체까지 고려한 방향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외피의 에너지 성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성능을 부가하고 내부공간은 거주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Capacity to change)을 갖춘 시스템으로 가변성을 갖춘 구조 시스템 전환(벽식 구조방식의 탈피),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자재의 선택, 소음방지와 공기질 등 실내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능이 높은 고성능 주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장수명과 자원 순환형 주택의 큰 틀 속에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택의 방향일 것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만들도록 유인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방향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